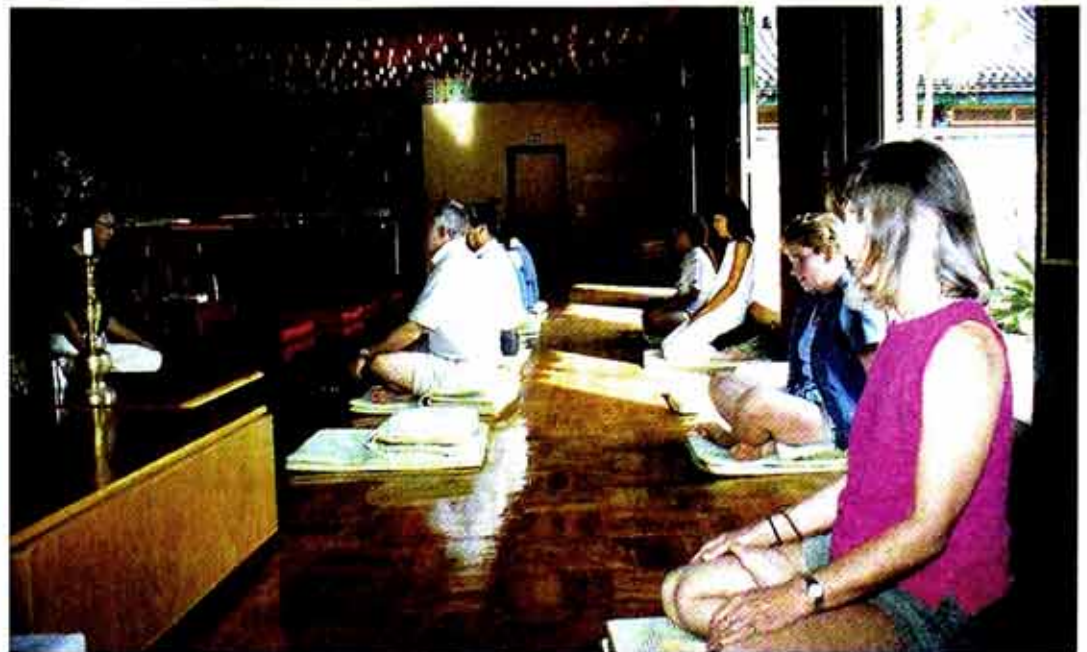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해외 한국사찰 중 유일하게 7명의 수행법사가 입재한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결재 모습. 말없는 길을 가는 선방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모습은 현지 불자들에게 참선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백인의 외국인들이 참선을 찾는 무량사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진한다. 현재 300여명의 백인계 일본계 등 외국인 불자들이 수행중인 무량사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은 현지에서도 소리가 퍼져나가 매주 2~3명의 사람들이 새로 찾아온다.

지금 하와이 무량사 시민선방에선 교포도 미국인도 '참선삼매 빠지다'

여래선-관조-포행 매일 2시간씩 진행

12일 오전 4시 50분, 새벽 2시부터 입선에 들어간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원) 태평선원 하안거에 입재한 7명의 스님들이 대웅전으로 들어온다.
이어 새벽 3시가 울리고 15명의 재가불자들이 선방스님들과 함께 참선삼매에 들어간다.
참선은 말없는 길이다. 입재한 사부대중은 1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참선에 들었다. 오전 6시가 되자 와이키키해변으로부터 다가오는 아침햇살이 살포시 법당으로 들어오면 죽비 3성이 따라 아침 참선프로그램이 그렇게 조용히 끝난다.
아침 참선프로그램은 한국의 외국사찰 중 유일하게 하안거 결재에 들어간 태평선원 스님들이 선방을 나가지 않는 원칙

을 지키고 특별히 불자들에게 회향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승 철산스님(前 내소사 주지)은 "선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말없이 마음을 꿰뚫기 위해 가는 길이다"며 "하루 12시간 정진하는 프로그램 중 특별히 외국에 나와있는 사찰임을 감안하여 대중들의 합의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포교차원에서 불자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반에 태평선원에 입재한 스님들은 승남이 41년, 한분, 31년, 두분, 29년, 두분, 27년, 한분, 12년, 한분으로 20~30년간 선방에서 정진해온 연륜있는 스님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스님들의 모습에서 불어나오는 선향은 자연스럽게 불자들에게 수행의 좌표가 된다.
매일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거사(前 외국어대 교수)는 "선방스님들이 참선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절로 생긴다"며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하룻내내 마음

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선방스님들이 아침공양 후 물려를 마친 뒤 참선삼매에 들어가고 몇명의 불자들도 법당에서 자유롭게 참선에 들어간다.
오후 3시가 되자 백인의 눈부른 젊은 외국인들이 하나 둘 법당으로 들어온다. 이들 외국인들은 백인계와 일본계 30여명이 참여하는 무량사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불자들이다. 4시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오자마자 법당에 앉아 참선에 든다. 그만큼 참선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는 강한 열의가 느껴진다.
외국인 참선프로그램 지도는 24년간 참선해온 그레고이 파이(한국인 2세, 하와이 주정부 공공위원회 위원)씨가 맡고 있다. 참선프로그램이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래선으로 진행한다.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13명의 외국인이 법당에 정좌한 가운데 참선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먼저 입선한 뒤 마음을 청정히 하여 본

래의 나를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선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능숙한 진행으로 나를 둘러싼 고통을 보고 느끼는 그 근원인 집착을 놓아버리는 훈련에 열중이다.
마음의 안정을 얻은 다음 곧바로 승결을 이용하여 정신을 한군데 집중함으로써 관조하는 참선에 들어간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와 생각을 전부 마음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다는 것도 없어지고 내자신도 없고 영혼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참선 1시간후 1시간은 포행으로 진행된다. 두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을 내려다 뒤 천천히 한발 한발 움직인다.
2시간의 참선프로그램이 끝나고 간략한 질의와 응답시간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행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인 만큼 응답을 마친 외국인들의 얼굴에는 맑고 환한 웃음이 드러워져 있다.
이날 신년여담 중 무량사에 관망했다가 처음 참선프로그램에 참석한 영국인 크리스티나씨(30세)는 "평소 한국불교 사찰과 불교의 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참선 프로그램에 참석해보니 너무 좋다"며 "영국에 돌아가면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한국사찰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참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행도량으로의 변모를 일신하고 있는 무량사는 하와이가 동서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불교 선종을 휘날리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 차근 사업을 진행중이다.
무량사는 올해 말까지 시민선방을 개원해 교민불자와 외국인 불자를 위한 참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참선프로그램에 수행언어를 마련해 태평선원의 인거와 때를 맞춰 1년에 두 번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와이=김일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한국禪으로 현지인 포교"

무량사 주지 도원스님



"한국 전통 선으로 외국인포교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원스님은 "인류의 관심이 이미 선으로 귀일되고 있는 추세다"며 "교인포교에 치중해온 그 동안의 선도포교 방향을 일부 수정중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해외 한국사찰들이 그동안 현지에서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것은 현지인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었다"며 "올해 말 시민선방이 완공 되는대로 현지 미국인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의 선을 통한 포교의지는 98년 무량사에 태평선원을 개원하여 한국불교의 선종을 드높이겠다는 계기가 됐다. 4안거를 성대한 태평선원은 올해 해외 한국사찰 선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안거에 입재했다. 스님은 태평선원의 정기를 받들어 살아 한국불교의 선종이 발원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맞는 참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참선은 인류구원 메시지"

참선지도 그레고이 파이



현대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참선임을 확신한다는 그레고이 파이(55세, 하와이 주정부 공공위원회 위원),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49재를 무량사에서 모신 것이 인연이 돼 1년 6개월간 무량사에서 외국인 참선프로그램과 영어교리강좌를 진행하며 한국 선과 위빠사나 선의 연관 관계를 연구중인 한국인 2세 불자다.
그는 "위기의 현대인들이 참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며 "한국선이 위빠사나처럼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기위해서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선이 화두선으로 불교의 교리는 뒤로한 채 화두에 대한 집중이 강력한 정신적 훈련이지만 위빠사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그때 그 생각을 관조하고, 수행하며 불교의 근본을 설명해주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철석법회에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무량사 회주 혜성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생각하고 받들어서 발전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행을 세우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므로 항상 기도 정진하라"고 법문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자재품 BIO창도요양침대

- ▶ 전자와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 ▶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자재품 원석외산 BIO물침대

-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돌침대에서 원석외산,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욕단 902

101 싱글보로

침대의 이름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02)424-9427/2203-7821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석외산이 전달됩니다.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인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침대는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국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 수 있습니다.